

## 〈사조선록 역주 4: 명사의 조선 사행록 3〉

주지번, 〈봉사조선고〉 (1606)

中 pp.239-297

- 〈봉사조선고〉 2권 〈東方和音〉
  - 유근(pp.202-280), 유영경(pp.281-285), 이호민(pp.285-297) 외 다수 조선 관원들이 주지번의 여정을 함께하며 지은 창화시 모음
- 의정부 좌찬성 (접반사) 유근 (pp.202-280 中 pp.239-280)  
= 주지번 파트의 pp.90-126의 여정에 해당

### 고려의 고궁 터 (243)

“한 집안인 四海가 盛代를 만났으니, 평탄하고 습한 지역 따라 민풍 채집하였으면.”

### 벽제를 새벽에 떠나다 (247)

“御書 품고 갑자기 해동 끝에 이르렀다. / … / 동변의 再造<sup>1</sup>에 황제의 보살핌이 있었으니, 지금부터 春臺에 즐거움이 크고 빛나리라.”

### 한성에서 조서를 맞아 즐겁게 춤추고 길이 막히는 것을 구경하며 (248)

“온 나라가 환호하며 漢詔를 맞이하고, 거리 메운 잡곡이 재빠르고 가지런한 시범 보인다. / 높이 떠오른 밝줄이 민첩한 다리에 걸리고, 몸 던지고 번드치며 춤추는 허리 휘돌린다.”

### 남쪽 별궁의 연회 (250)

“비와 이슬 같은 은택이 聖朝에서 베풀어지니, 환호하고 내달리며 신료들이 에워싼다. / 마음은 언제나 공극<sup>2</sup>하여 성의를 가리기 어려우나, 재물이 威儀<sup>3</sup>만 같지 못해 禮가 어찌 풍족할까.”

### 민충단을 지나며 (258)

- 이어송의 구체적 사례를 들어 명나라의 은혜를 칭송
- “小邦이 비와 이슬 같은 은혜 입어, 皇威가 바다의 요사스런 기운을 깨끗이 했다. 국토는 비록 탄환이지만, 이백 년 동안이나 병변이 되었다.

---

1 쇠한 나라가 다시 성해짐

2 사방의 백성이 임금의 덕화에 따름

3 예법에 맞는 몸가짐

天心이 작은 나라 구휼함에 있어, 도끼를 이장군<sup>4</sup>에게 주었다.

...

적을 공격하니 무너지지 않는 보루가 없고, 신속하게 소탕하니 얽힌 것이 풀어졌다.

마른 가지 꺾고 썩은 나무 부러뜨리듯 쉽게, 한 번 싸워 높은 공훈 세웠다.

...

다시 태어난 삼한 사람들, 어떻게 성은에 보답할 수 있을는지.

天仙이 시를 지어 조문하니, 이 뜻 이미 부지런히 받들고 있다.

장군은 구름 속에서 전사했지만, 큰 공은 천하의 대세를 전환시켰다.”

- 기자의 유산

- 기자묘

“동국의 백성이 예의를 알게 하였으니”

- 평양 16경 - 정전 (262)

“여덟 조목 가르침이 동국의 백성에게 남아있고, 같은 井의 사람들이 밭을 갈며 봄 묻는다. / 비와 이슬 같은 은혜를 다시 삼한으로 보냈으니, 마침 이제 나라 운명을 維新(유신)<sup>5</sup>에 맡기리라.”

- 고별시

- 長歌 (267)

“내 강가에 와서 임금의 명을 전했는데, 한 번 만남에 평생의 지기처럼 기뻐했다. / 우렁찬 종소리 같은 말씀이 우뢰처럼 울리니, 바라보면 신선 같아 가까이하기가 어려웠다. / 小邦이 환영하여 다투어 정성을 다하고, 도처에서 분주하게 노루처럼 떼지어 이르렀다.”

“산은 고상한 사람처럼 높다랗게 솟아있어, 아직도 깊이를 못 헤라리는 나를 비웃는다. / 공은 내 말 듣고 그 요점 이해해서, 용과 뱀처럼 붓이 뛰어 책 속에 시가 거뒀다.”

“공을 따라 신선되는 일을 배우려 해도, 어찌하랴 이 우물 안 개구리가 동쪽 구석에 잡혔으니.”

“사람이 태어나 멀리 헤어짐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됐지만, 그래도 아름다운 패옥이 상자 안에 남아있음을 위안 삼는다.”

- 의주의 이별 (271)

“고상한 시편 여러 번 얻어 밝은 구슬 백 여 개나 꿰었는데, 이 아름다운 선물 모두 백벽 한 쌍보다 훌륭하다. / 평생 동안 언제나 손에 쥐고 감상할 터, 채색 무지개 길게 뻗어 맑은 창문을 꿰뚫는다.”

➤ 의정부 영의정 유영경 (pp.281-285)

= 주지번 파트의 pp.103-107의 여정에 해당

- 한강 (281)

“강가의 누대가 전쟁 화재로 사라졌지만”

“모시고 유람하며 은혜 물결이 멀리 있음을 느끼지 못했으니, 문득 낙랑군 있었던 때를 생각하며 웃음 짓는다.”

“모두가 皇恩 입어 외국이 따로 없으니, 이 땅을 中州보다 경시하지 않기 때문. / 하류에 남은 경치도 뛰어나게 아름다우니, 상류와 구분해서 안보는 풍경 남기지 마시기를.”

---

<sup>4</sup> 명나라의 장군 이여송; 임진왜란 때에 조선에 출병하여 평양과 한성을 수복함

<sup>5</sup> 고쳐서 새롭게 하다

➤ 영중추부사 이호민 pp.285-297  
= 주지번 파트의 pp.97-109의 여정에 해당

조서를 반포하는 의례를 이루다 (285)

“... 비단이 휘황하여 태양 빛을 빼앗는다. / 문득 밝게 갠 창공 바라보니 기쁜 기운 올라가고, 이슬 맺힌 풀 돌아보니 아름다운 향기 내뿜는다. / 바다 들끓는 기쁜 한성이 깊은 골짜기 기울기고 ... / 황제 덕을 이제 어떻게 갚아야 하나, 요사한 기운이 오래 전에 扶桑(부상)<sup>6</sup>에서 사라졌다.”

벽제를 새벽에 출발하다 (286)

“天使가 수레 재촉하는 뜻을 누가 알리오, 조정이 蕃邦 백성 위로함을 눈 비비고 기다린다. / 좀 보시오 은혜 맞아 禮 이룬 곳을, 서쪽 교외에 떠오르는 해가 점점 맑게 빛난다.”

남별궁의 연회 (287)

“공손하고 근실한 우리 임금은 거룩한 조정을 떠받들고, 언제나 정성 기울여 신료들을 격려한다. / 음식을 주는 것은 현명하고 신실한 이 대우하는 것일 뿐, 폐읍<sup>7</sup>이 풍요해서 모두 주는 것은 아니다.”

- 조선의 자부심 표현

성인 알현 (288)

“동변에 있는 우리 도를 흠잡은 적은 없었다.”

잡두봉 (291)

“강물이 중국과 다르지 않아 붉은 절벽이 많으니 ... / ... / 중원에 이만한 경치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, 이 아름다운 놀이는 燕城<sup>8</sup>에서도 으쓱거릴 만하리라.”

- 임진왜란의 흔적

개춘정 (292)

“병란의 뒤끝이라 명문 저택도 쇠퇴함이 흑심하고”

산우루 (293)

“병란 후에 수목들이 새로 따라 우거졌고”

---

<sup>6</sup> 해가 뜨는 동쪽 바다

<sup>7</sup> 조선이 명에 대해 스스로 낮추어 자칭한 겸사

<sup>8</sup> 명조의 도읍 북경 일대를 이르는 말